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

빌립보서 3:7-14

강요한 목사님

파스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 마음 속에 허공을 창조하셨다고 했다. 사람은 이 허공을 채우려고 노력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채우려고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쫓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쫓아가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쫓는다. 그러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공이 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채울 수 있다. 해답을 붙잡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바울은 고백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이 죽음 이후에 오는 것이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절대 부활을 볼 수 없는데,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을 누리려는, 참된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한다.

1. 그리스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가?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BC와 AD의 주인공 되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역사의 기준,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분이 누구인가? 단 한 권 책을 쓰신 적이 없으나 그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고, 싸우신 적이 없는데 모든 왕과 장군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세계를 정복한 그분은 누구인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최고의 가치였다.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 되기를 축복한다.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인가?

(1) 인간에게 왜 문제가 오는가? 로마서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왜 인간에게 재앙이 오고 전쟁이 오고 질병이 오는가? 왜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정신병이 자꾸 오는가? 왜 해결이 안 되는 중독의 문제가 계속되는가? 왜 자살하게 되는가? 성경만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공격한다.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공격한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반드시 무슨 문제가 오는가? 사도행전 13장, 정치인이 무속에 잡혀 있다. 사도행전 16장, 경제인이 집술에 사로잡혔다. 사도행전 19장,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재앙의 상태가 찾아온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불신자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하니까

불신자의 노예가 된다.

(2)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 것이다.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 창세기 3:15 여자의 후손, 이사야 7:14 임마누엘을 보내시겠다는 것이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9:30에,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다. 모든 문제, 모든 저주, 모든 재앙,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다 이루셨다. 사도행전 4:12,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에게 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우리에게 와 있는 근본문제, 사단의 문제를 깨뜨리고 참 왕이 되었다. 모든 죄와 저주, 재앙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참 제사장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옥 배경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참 길인 참 선지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는 것이다. 최고의 가치 되신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죽음이 오히려 유익했다. 죽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던 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나, 하나님을 대적하던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살게 된 것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20이다.

2.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를 발견한 바울은 고백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안식 후 첫 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증거가 평강인데, 그 증거가 언제 오는가? 그 권능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는가?

(1)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실 때부터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부터 우리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된다. 그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성령충만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40일 동안 설명하셨다. 성령충만을 어떻게 누리는가? 하나님의 나라다.

(2)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신분을 누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순간부터 신분과 권세가 온다.

(3) 이것을 누린 사람이 렘넌트 일곱 명이다.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이 되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핏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렸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 누리,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축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한다. 이 부활의 권능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라.

3. 쫓대를 향하여

우리 인생이 가져야 할 목표가 있다. “뜻대를 향하여.”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해야 한다.

(1) 내 주장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서, 그리스도 예수께 매여서 사는 것이다.

(2)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이 땅에서 많은 영광을 생각하며 살 수 있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을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3)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다.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것이다. 반드시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라.

요한복음 10:10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했다.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또 말씀한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왜 우리는 자꾸 복음만 듣기를 원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풍성케 되기 때문이다.

(1) 창립 50주년이다. 임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공동의회가 있었고, 부활절 칸타타도 진행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우셨다.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에 참여하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기 위해서 위에서 부르신 것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바란다.

(2) 유럽전도집회, 유럽렘넌트대회가 있다. 항상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겠다.

(3) 여름 스케줄이 있다. 세계렘넌트대회 등록이 4월 29일부터 시작된다. 빨리 등록해서 하나님이 복음운동을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 보고 참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4) 대학청년부 자체수련회가 5월 8일~9일에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란다.